



# 완도 명사십리 해변서 즐기는 '여름의 휴식'

완도군 신지면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에서 27일부터 8월6일까지 11일간 '여름의 휴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해양치유 활동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해변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르딕워킹을 하는 모습.

<완도군 제공>

## 군,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27일~8월 6일 '해양치유' 진행 노르딕워킹·해변 필라테스...향초 만들고 미디어아트 감상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변을 배경으로 한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가 다양한 해양치유를 진행하며 방문객들에게 '여름의 휴식'을 무료로 선사한다.

'여름의 휴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해양치유는 27일부터 오는 8월6일까지 11일간 이어진다. 해양치유 활동은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후 1시와 2시 30분, 4시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완도 해양치유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육통을 완화하기 위한 치유 활동으로 구성됐다.

신지면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일원에서는 시각·후각·촉각·미각 등 인체 오감을 활용한 문화치유와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르딕워킹(기후치유)을 체험할 수 있다. 매일 세 차례 진행되는 노르딕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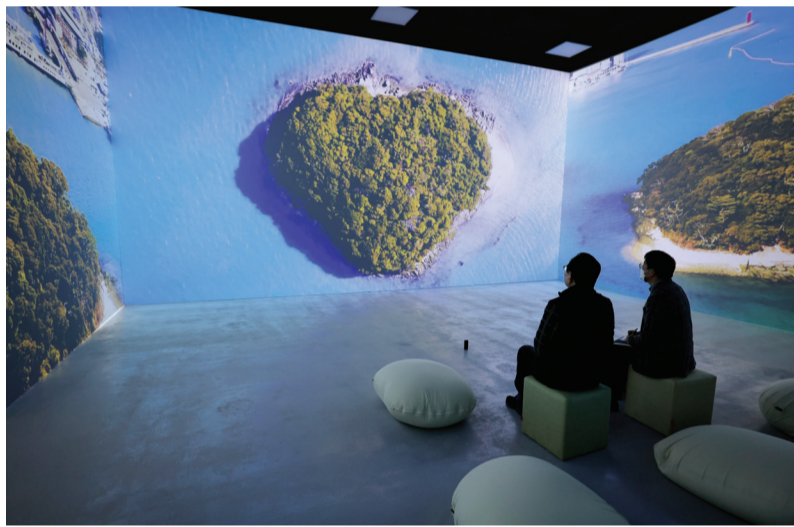
에서는 강사 2명과 소나무 숲, 해변을 걷는다. 해변 필라테스와 해변 명상 등 해양기후 치유 활동도 대표적이다. 해양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양초와 방향제, 음식을 만들어보는 문화치유도 인기를 얻고 있다.

완도군이 지난해 여름 25일간 운영한 '해양치유 체험존' 이용객은 5005명에 달했다.

참가자들은 이용 설문조사에서 "해양치유로 피로 해소와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봄에 운영한 해양치유 '봄날의 힐링'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8차례에 걸쳐 1332명이 해양치유를 체험하고 갔다. 지난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치른 '청산 슬로걷기축제'에서는 노르딕워킹 체험을 9차례 진행하며 128명이 해변 걷기를 만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는 카약과 패들보드 등 수상 레저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무



센터 시청각동을 찾은 방문객들이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왼쪽) 참가자들이 후각을 통한 치유를 위해 양초와 방향제를 만드는 모습. <완도군 제공>



로 체험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기후치유는 완도군 해양치유담당 센터운영팀(061-550-5681), 문화치유 프로그램은 문화치유센터(061-553-8009)로 예약 신청할 수 있다. 빈자리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체험 신청할 수도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참가자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여름에도 많은 이용객이 청정바다 완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치유'는 완도군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4월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양치유 관광시대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열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해양치유 관광 상품 개발과 판매에 힘쓰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 시내버스 개편 의견 수렴합니다”

### 목포시, 누리집에 창구 열어

목포시가 시 누리집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열었다.

이 창구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최근 목포시는 시내버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순회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목포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온라인 의견

창구를 만들게 됐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은 장거리·장시간 노선, 낮은 운행 효율성, 낮은 수익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민원 자료를 분석하고 현행 노선을 실사해 전면 개편안과 부분 개편안 2가지 방안이 나왔다.

전면 개편안은 목포지역에 적합한 노선구조를 설정하고 노선 형태를 효율화한 14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부분 개편안은 기존 노선의 굴곡도와 비효율 구

간을 조정해 12개 노선으로 마련했다.

목포시는 시 누리집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추진 개요와 특징, 상세 노선도를 실었다.

온라인 창구에 의견을 내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또 목포시 교통행정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의견을 낼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해 최적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신안군 “귀농 ‘1만원 아파트’서 시작하세요”

### 30평 연립주택 거주할 도시민 모집...신혼부부 등 1만~15만원

신안군이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에게 월 최저 1만원에 아파트를 빌려주는 주거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안군은 압해읍 동서리에 있는 30평형(99㎡) 연립주택(벨리스파크)에 거주할 귀촌 도시민을 다음 달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주거 지원사업은 농촌에 살러 오는 도시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를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최근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를 받고 제공할 계획이다.

이 연립주택은 모두 27호로, 방 3개·화장실 2개를 갖췄다.

신안에 귀촌하는 입주민에게는 월 7만원부터 최고 15만원까지 나이별로 차등을 뒤 임차료를

받는다.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월 1만원에 집을 빌려줄 계획이다.

신안군은 입주 신청자를 다음 달까지 모집하고 9월 초 입주를 진행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소 2년 거주가 보장되며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다.

자세한 입주 조건과 내용은 신안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했다"며 "지역 활성화와 인구감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행복 다함께돌봄센터’ 세번째 개소

### 일로읍 한국아텔리움위너스 아파트 내...방과 후 돌봄 공백 예방

무안지역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무안행복 다함께돌봄센터'가 26일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센터는 일로읍 한국아텔리움위너스 아파트 안에 마련됐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무안행복 다함께돌봄센터는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무안군으로부터 수탁 운영한다.

이곳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입소 정원은 30명이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다.

무안에는 일로읍 오희호반1차 아파트와 삼향읍 남약 예수비전교회 등 2곳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맞춤형 이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26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무안행복 다함께돌봄센터'가 무안군 일로읍 한 아파트 단지에 세 번째로 개소했다. <무안군 제공>

## 해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

### 내달 16일부터...평일 자정까지

해남군은 해남종합병원을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8월16일부터 진료 시간을 평일 자정까지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초 의료 개선을 위한 민간 의료 기관 지원조례를 만들고, 자체 공모사업을 벌여 해남종합병원을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남종합병원은 해남군 지원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을 늘려 총 3명의 전문의를 갖추게 됐다.

해남군은 신규 채용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해남군은 급성 질환이 많은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야간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아이 키우는 환경을 개선해 젊은 인구 이탈을 막고자 하는 효과도 노렸다. 소아청소년과가 줄어드는 전국적인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이기도 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실 운영 연장을 계기로 야간에 응급실이나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경증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